

# 肺風粉刺의 治療 1例 報告

高 祐 新\*

## I. 緒 論

肺風粉刺는 現代醫學의 여드름(acne)으로 韓醫學에서는 줄여서粉刺라고도 한다. 歷代醫書에 나타난 肺分粉刺의 說明으로는 《諸病源候論》의 面體病諸候·面皰候에 “面皰라는 것은 얼굴위에 風熱의 邪氣로 인하여 여드름이 생기는 것으로 꼭대기가 쌀 크기 정도이고 색깔은 白色이다.”<sup>1)</sup>하였다. 또한 《醫宗金鑑》의 外科心法要結·肺風粉刺에는 “이 증상은 모두 肺經의 血熱로 인하여 발생하고 매번 面鼻에 발생하며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부스럼과 같으며 형태는 기장의 겹질과 같고 색은 赤色이며 腫痛하고 터트리면 白色의 粉汁이 나온다. 시간이 경과하면 모두 白屑을 형성하며 형태는 기장과 쌀의 白屑과 비슷하다.”<sup>2)</sup>하였고, 《外科正宗》의 肺風粉刺酒齎鼻第八十一에는 “肺風粉刺, 酒齎鼻는 이름은 3가지이지만 같은 종류로粉刺는 肺에 속하고 齎鼻는 脾에 속하며 모두 血熱이 鬱滯하고 쌓여서 발생한다.”<sup>3)</sup>하였다. 그리고 안<sup>4)</sup>은 좌창 즉 여드름은 십대 혹은 사춘기에 주로 발생하며 다양한 인자에 의한 모낭과 피지선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발진이 생겼을 때는 가렵고 누를 때 통증을 느끼며 피지선의 분비가 많은 안면부에 주로 생기며 이외에도 목, 가슴, 어깨 및 등에 잘 생긴다 하였다. 또한 분류로는 심상성 여드름, 응괴성 여드름, 전격성 여드름, 월경전 여드름, 사춘기전

여드름, 켈로이드성 여드름, 그람 음성균에 의한 여드름, 잘상성 여드름이 있는데<sup>5)</sup> 이 중 皮膚科 醫院에서 尋常性 여드름이라는 診斷을 받고 治療가 힘들어 本院에 來院한 患者에 韓藥을 투여하여 好轉된 治療 1例를 報告하는 바이다.

## II. 症 例

1. 患 者: 손○○, 女子, 31歲(未婚)
2. 初 診: 1995年 3月 27日
3. 病 名: 肺風粉刺(尋常性 痤瘡)
4. 症 狀: 皮膚發赤, 皮膚脫屑, 약간의 瘙癢感
5. 既往歷: 과거에도 현재와 같이 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발생경력이 있었고 한방치료를 받

- 1) 巢元方: 諸病源候論, 台中市, 昭人出版社, p.484.  
“面皰者, 謂面上有風熱氣生皰, 頭如米大, 亦如穀大, 白色者是”
- 2) 吳 謙: 醫宗金鑑(下), 서울, 大星文化社, pp.188~189, 1983.  
“此證由肺經血熱而成, 每發于面鼻, 起碎疙瘩, 形如黍屑, 色赤腫痛, 破出白粉汁, 日久皆成白屑, 形如黍米白屑”
- 3) 陳實功: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55, 1983.  
“肺風, 粉刺, 酒齎鼻三名同種, 粉刺屬肺, 齎鼻屬脾, 總皆血熱鬱滯不散”
- 4) 안성구의 二人: 흔히 보는 피부질환, 서울, 고려의학, pp.59~62, 1993.
- 5) 大韓皮膚科學會刊行委員會 編著: 皮膚科學, 서울, 麗文閣, pp.347~350, 1990.

\* 東義大學校 韓醫科大學 外官科學敎室

고 好轉된 病歷이 있음.

6. 家族歷: 別無

7. 現病歷: 1年半前부터 목덜미로 粉刺가 발생하였으며, 生理前에는 더욱더 심하였다. 최근 3~4個月 사이에 가슴, 등, 팔, 전체로 심하게 파급되었고 發赤이 생기는 부위와 膿이 없었고 나서 아물고 있는 부위에 皮膚脫屑이 약간씩 있음. 더운 날에도 皮膚의 損害部位(목부위) 때문에 목티를 입고 다닐 정도였고, 약간의 搔痒感과 皮膚發赤(紅色)을 나타내었음. 평소 大便 상태는 軟便이었고, 生理는 遲(十日)하였다. 또한 한번씩 上熱感을 호소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脈細微數하고 舌淡紅하였다. 洋方 皮膚科에서 오랫동안 外用藥과 內服藥을 복용하였지만 현재상태에서 변화가 없다고 하였음. 또한 이로 인하여(피부과의 내복약 장기간 복용) 현재는 胃腸障礙도 호소하고 계심.

8. 辨 證: 血虛로 인한 虛熱(上升)症으로 보았음(血熱症).

9. 診 斷: 血熱로 인한 肺風粉刺

10. 治 療:

(1) 1次 來院: 처음에는 胃腸障礙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약을 쓰기가 힘들어 六味地黃湯에 加減을 한 處方(以下 A湯<sup>6</sup>이라 함)을 4貼주었음.

(2) 2次 來院(1995. 3. 29): 이틀간 복용하고 발생하는 것이 여전하고 別無好轉하다 하심. 胃腸障礙나 大便狀態는 불편함이 없다고 함. A湯에서 加減(去 人蔘, 加 沙蔘(一錢), 白蘚皮(七分))한 處方(以下 B湯<sup>7</sup>이라 함)을 4貼주었음.

(3) 3次 來院(1995. 3. 31): 안에서 膿이 단단하여 지는 느낌을 호소하고 發赤感과 上熱感이 약간 양호하며 輕微한 搔痒感을 호소하고 胃腸

障礙는 없다 함. 膿이 단단히 굳어지는 상태를 없애고 血熱을 빨리 제거하기 위하여 B湯에서 加減(去 熟地黃, 山藥, 山茱萸, 白茯苓, 車前子, 草果하고 加 生地黃(一錢半), 皂角刺(一錢), 犀角鎊, 紫草, 地骨皮, 柴胡(各七分))한 處方(以下 C湯<sup>8</sup>이라 함)을 4貼주었음.

(4) 4次 來院(1995. 4. 1): 膿이 생기는 횡수가 많이 줄었다 하시고 소양감은 전혀 없다 함. 胃腸障礙는 없음. C湯에다 加 牡蠣粉(七分)하여 4貼주었음.

(5) 5次 來院(1995. 4. 3): 목부위와 가슴, 등에 생기는 횡수가 많이 줄었다 함. C湯에다 加 牡蠣粉(七分)한 處方을 10貼주었음.

(6) 6次 來院(1995. 4. 7): 膿이 생기지 않고 지금까지 생겼던 膿도 거의다 소멸되었으며 皮膚表面의 色素變化만 남아 있음. C湯에다 加 牡蠣粉(七分)한 處方을 一劑주었음.

(7) 7次 來院(1995. 4. 21): 上熱感은 거의 없고 膿이 발생하지 않는다 함. C湯에다 加 牡蠣粉(七分)한 處方을 一劑 주고 다 복용후 10일 지나서 來院하라함(계속적인 滯熱之劑의 투여로 胃腸障礙가 염려되어 약간의 시간이 경과된 뒤에 來院하라함).

(8) 8次 來院(1995. 5. 13): 膿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皮膚搔痒感도 없으며 皮膚色素變化만 남아 있음. C湯에다 加 牡蠣粉(七分)한 處方을 一劑 주었음.

(9) 以後 다시 來院하였을시 皮膚의 色素變化는 전혀 없었고(正常 皮膚色), 最近 컨디션이

7) B湯 ⇒ 熟地黃, 當歸(各二錢), 白朮(炒), 赤芍藥, 山藥, 山茱萸, 白茯苓(各一錢半), 益母草, 沙蔘, 牡丹皮, 澤瀉, 草果, 川椒, 甘草(各一錢), 桑白皮, 蟬退, 薄荷, 白蘚皮(各七分), 黃連, 黃柏, 車前子(各五分)

8) C湯 ⇒ 當歸(各二錢), 白朮(炒), 赤芍藥, 生地黃(各一錢半), 山茱萸, 益母草, 沙蔘, 牡丹皮, 澤瀉, 川椒, 甘草, 皂角刺(各一錢), 桑白皮, 蟬退, 薄荷, 白蘚皮, 犀角鎊, 紫草, 地骨皮, 柴胡(各七分), 黃連, 黃柏(各五分)

6) A湯 ⇒ 熟地黃, 當歸(各二錢), 白朮(炒), 赤芍藥, 山藥, 山茱萸, 白茯苓(各一錢半), 益母草, 人蔘, 牡丹皮, 澤瀉, 草果, 川椒, 甘草(各一錢), 桑白皮, 蟬退, 薄荷(各七分), 黃連, 黃柏, 車前子(各五分)

안 좋아서 아주 적은 모양으로 1~2개씩 다시 난다함.

### Ⅲ. 考 察

肺風粉刺는 흔히 여드름이라고 불리는 症狀으로 原因으로는 《諸病源候論》의 面體病諸候·面皰候에 “面皰라는 것은 얼굴위에 風熱의 邪氣로 인하여 여드름이 생기는 것으로 꼭대기가 쌀 크기 정도이고 색깔은 白色이다.”<sup>9)</sup> 하였고, 《醫宗金鑑》의 外科心法要訣·肺風粉刺에 “이 症狀은 모두 肺經의 血熱로 인하여 발생하고 매번 面鼻에 발생하며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부스럼과 같으며 형태는 기장의 껍질과 같고 색은 赤色이며 腫痛하고 터트리면 白色의 粉汁이 나온다. 시간이 경과하면 모두 白屑을 형성하며 형태는 기장과 쌀의 白屑과 비슷하다.”<sup>10)</sup> 하였으며, 《外科正宗》의 肺風粉刺酒皸鼻第八十一에는 “肺風, 粉刺, 酒皸鼻는 이름은 3가지이지만 같은 종류로 粉刺는 肺에 속하고 皸鼻는 脾에 속하며 모두 血熱이 鬱滯하고 쌓여서 발생한다.”<sup>11)</sup> 하였다. 또한 《外科大成》肺風酒刺에서는 “肺風은 肺經에 血熱이 쌓여서 정상적인 운행이 되지 않으므로 酒刺를 형성한다.”<sup>12)</sup> 하여 血熱에 의하여 나타나는 症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辨證 및 症狀으로는 中醫外科學 등<sup>13)</sup>에 첫째는 肺熱血熱證으로 表現은 顏面潮紅, 粉刺가 발생한 부위에 灼熱感을 느끼고 疼痛 或은 膿疱가 있으며 苔薄舌紅, 脈象細等の 症狀이 겸하며, 둘째는 腸胃濕熱證으로 皮疹이 紅腫疼痛하고 또한 便秘尿赤하며 納呆腹脹하며 苔黃膩, 脈滑數等の 症狀도 나타난다 하였다. 셋째는 脾虛濕痰證으로 皮疹에 膿疱가

있고 結節, 囊腫, 疤痕이 주가되고 或은 겸하여 納呆便滯하고 舌膩脈滑數의 症狀이 있다. 하여 총 3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 治療로는 中醫外科學<sup>14)</sup>에 肺熱血熱證에는 涼血清熱이 爲主이고 枇杷清肺飲을 사용하고 腸胃濕熱證에는 清熱化濕通腑가 主이고 茵陳蒿湯加減을 사용하며 脾虛痰濕證에는 健脾化痰利濕清熱이 主이고 자주 사용되는 藥物로는 黨蔘, 茯苓, 白朮, 山藥, 半夏, 陳皮, 白芥子, 丹蔘, 車前子, 蛇舌草 등이라고 하였다.

양방적인 여드름의 정의는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모낭 피지선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面皰, 구진, 농포, 낭종 및 결절 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피부의 지루성 부위인 인면, 경부, 배부, 견갑부에 호발한다. 전형적인 병변은 흑두(黑頭, blackhead)라 불리는 면포이나 여러 종류의 발진이 섞여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면포 주위의 경미한 염증 반응으로 인한 구진, 이차 감염에 의한 농포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囊腫 및 結節을 일으켜 治愈된 후에도 癍痕을 남기는 수가 있다. 10歲 前後에서 정도의 여드름이 시작되는

10) 吳 謙 : 醫宗金鑑(下), 서울, 大星文化社, pp.188~189, 1983.

“此證由肺經血熱而成。每發于面鼻, 起碎疙瘩, 形如黍屑, 色赤腫痛, 破出白粉汁, 日久皆成白屑, 形如黍米白屑”

11) 陳寶功 :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55, 1983.

“肺風, 粉刺, 酒皸鼻三名同種。粉刺屬肺, 皸鼻屬脾, 總皆血熱鬱滯不散”

12) 祁 坤 : 外科大成, 台北市, 文光圖書有限公司, p.217, 中華民國 六十八年.

“肺風由肺經血熱鬱滯不行而生酒刺也”

13) 顧伯康 主編 : 中醫外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305, 1987.

成都中醫學院自考辦公室 編 : 中醫外科學,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p.177, 1989.

14) 顧伯康 主編 : 中醫外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05, 1987.

9) 葉元方 : 諸病源候論, 台中市, 昭人出版社, p.484

“面皰者, 謂面上有風熱氣生皰, 頭如米大, 赤如穀大, 白色者皰”

수도 있지만 대부분 10대 후반이나 20대에서 발생한다. 原因으로는 皮脂分泌의 過多, 情緒的 要因, 스테로이드 등의 각종 약제, 화장품 등으로 알려져 있다. 治療로는 皮膚를 청결히 하고 약용비누, 국소도포 항생제, 압출요법, 부신피질 호르몬제 병변내 주사, 식이요법 등이 있다<sup>15)</sup> 하였다.

이에 本人은 尋常性 痤瘡이라고 診斷받고 皮膚科 治療를 받았지만 症狀의 好轉이 힘들고 장기적인 內服藥의 투여로 胃腸障礙까지 호소하여 韓方治療를 받기를 위하여 來院한 上記 患者를 診察하고 血虛로 인한 血熱症으로 診斷하여 補陰劑인 六味地黃湯을 基本으로 消導之劑 및 清熱之劑를 加減한 處方(A湯)을 투여하여 治療에 임하였고, 환자에게는 화장품 사용을 피하고 손이나 의복으로 환부에 자꾸 자극을 주지 못하도록 하였다.

總 9회에 걸쳐 來院한 上記 患者는 처음 胃腸障礙를 屢하여 消導之劑에 많은 비중을 두어 處方을 구성하였지만 自覺症狀의 好轉이 힘들어 此後 3次 來院時부터는 清熱之劑의 中點적인 加味와 增量으로 차츰 症狀의 발생이 줄어들고 以後 계속적인 투여로 瘙癢感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韓藥의 투여는 患者로 하여금 發赤感과 瘙癢感을 줄어들게 하는데는 많은 效果를 보았지만 色素沈着은 如前 하였다. 그래서 本人은 色素沈着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여야 없어진다고 患者에 설명하고 8次 來院時까지 약간의 가미를 한 處方을 위주로 계속적인 투여를 進行하였다.

9次 來院時인 8월경에는 皮膚색깔이 正常 皮膚色이었고 患者가 가슴과 등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목에 1~2개 정도의 아주 작은 형태로 발생한다 하였음.

## IV. 結 論

이상과 같이 尋常性 痤瘡이라는 診斷을 받고 來院한 肺風粉刺의 患者를 藥物투여로 治療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간의 見解를 얻었다.

1. 皮膚疾患의 나타나는 症狀를 빨리 개선하기 위하여는 多數 및 多量의 清熱之劑를 투여하여야만 症狀의 好轉이 빨랐다.
2. 症狀이 好轉되는 경우는 1개월정도의 時期가 필요하였다.
3. 清熱之劑가 많이 들어간 上記 處方을 몇개 월간의 투여하면서 혹시 屢려되었던 胃腸障礙는 觀察되지 않았다.

## 參考文獻

1. 巢元方 : 諸病源候論, 台中市, 昭人出版社, p.484
2. 吳 謙 : 醫宗金鑑(下), 서울, 大星文化社, pp.188~189, 1983.
3. 陳實功 : 外科正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255, 1983.
4. 안성구의 二人 : 흔히 보는 皮膚질환, 서울, 고려의학, pp.59~62, 1993.
5. 大韓皮膚科學會刊行委員會 編著 : 皮膚科學, 서울, 麗文閣, pp.347~350, 1990.
6. 祁 坤 : 外科大成, 台北市, 文光圖書有限公司, p.217, 中華民國 六十八年.
7. 顧伯康 主編 : 中醫外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05, 1987.
8. 成都中醫學院自考辦公室 編 : 中醫外科學, 成都, 四川科學技術出版社, p.177, 1989.

15) 大韓皮膚科學會刊行委員會 編著: 皮膚科學, 서울, 麗文閣, pp.347~350, 1990.